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건 ‘은총’...오래 산 만큼 책임도 많아”



천주교 광주대교구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

‘백수’ 맞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 5·18 등 현대사 산증인...27일 염주동성당서 기념 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가 오는 11월 백수(白壽)를 맞는다. 한국 가톨릭 생존 주교 가운데 최고령인 윤 대주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다.

사제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광주에서 보낸 그는 “80년 5·18 당시 금남로에서 어느 젊은이가 군인들의 방망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 차마 어찌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아마 사제로서의 본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음직하다.

이후 그는 광주의 5월을 알리기 위해 교황청, 미국대사 등을 만났으며 1981년 5·18 관련 구속자에 대해 대법원 사형 판결을 내리자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전두환을 만나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해 1주기를 앞두고는 서울에서 추모미사를 열어 5·18의 진상을 알리는 강론을 펼치는 등 5월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대교구는 윤 대주교 백수를 기념하는 감사 미사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염주동 성당에서 진행

한다. 광주일보는 백수 미사를 앞두고 윤 대주교와 인터뷰를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대면이 어려워 교구 비서실과 평화방송을 통해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아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윤 대주교는 나주남평 광주가톨릭대학교 주교관에서 지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백수를 맞은 윤 대주교의 사제 인생에 대한 회고와 광주와의 인연,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 규명 활동, 한국 가톨릭 교회에 전하는 당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 대주교는 백수를 맞는 감회에 대해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며 “그러나 오래 산 만큼 또 하나님의 책임도 많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수(白壽)라는 뜻은 한자 ‘일백 백(百)에서 한 일(一) 자를 뺀 ‘흰 백(白)을 쓰는 아흔아홉을 일컫는다. 웬만큼 건강하지 않고는 백수까지 장수하기는 쉽지 않다.

윤 대주교는 건강 비결에 대해 “부모님이 두 분다 장수하셨다. 아마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다”며 “심장수술을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꾸준히 걷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닌가도 싶다”고 말했다.

1924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한 윤 대주교는 부모가 모두 신자였다. 요즘으로 하면 평신도 대표 격인 사목회장이었고, 전교 회장까지 맡았다. 세상에 나온 이튿날 세례를 받을 만큼 그는 자연스레 윤 천주교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어찌 보면 그의 일생은 성직자로서의 삶이 예정돼 있었던 것도 같다.

1949년 함경남도 덕원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북한에 가톨릭에 대한 탄압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다. 이후 1950년 3월 현재 가톨릭대학인 서울 성신대학을 졸업하고 사제서품을 받는다. 서울과 부산 등서 사제 생활을 하다 교황청으로 유학을 떠나 1957년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1960년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지난 1973년 10월 광주대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다. 27년간 교구장을 맡아 지난 2000년 은퇴할 때까지 윤 대주교에게 80년 광주 5·18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다.

“당시 금남로에서 어떤 젊은이가 군인들한테 동물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사람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할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엄군이 나를 해할까 두려워 어찌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아프고 후회되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약’ 냄새가 나는 사제가 되려’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을 사제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특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런 사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바램을 물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돌아왔다. “어떤 교우를 만났는데 ‘백수 기념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참 감격스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감사를 전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고 덧붙였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빛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빛’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빕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시, 정신질환자에 자립생활 주택 지원

광주시, LH전남지역본부와 2년간 주거복지지원 업무협약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5월 LH 전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매입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운영 지침,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자립생활 주택은 1인 1실 형태로 호당 2명이 입주한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 및 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괄 운영하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관리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체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및 정신응급상황 관리, 동료지원가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입주자 1명당 주거코디네이터 1명, 동료지원가 1명, 사례관리자 1명이 함께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는 소외계층 중에서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배제 대상이 아니라 환경조성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자립생활주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발 ‘K-양궁’ 바람이 분다



스포츠 예능 최초로 시도되는 양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언니랑 쏠래’에서 ‘특별 코치’로 나선 안산이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양궁은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고 효자 종목으로 꼽힌다.

특히 여자 양궁은 올림픽 단체전 9연패라는 위업을 이뤘다. 세계를 놀라게 한 9연패 행진에는 대한민국의 양궁 1호 금메달리스트이자 최초의 여자 금메달리스트인 서양순을 비롯해 기보배·최미선·안산으로 이어지는 광주를 대표하는 신공들이 있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도 앞둔 만큼 광주는 명실상부한 ‘양궁 도시’다.

‘신공’ 기보배와 특급 조련사인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팀 감독이 광주의 양궁 열기를 잇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다. 광주 양궁의 핵심인 두 사람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를 무대로 한 광주 KBS의 양궁 예능 프로그램 ‘언니랑 쏠래?’를 통해

광주KBS, 양궁 예능 ‘언니랑 쏠래?’ 31일 첫방송
김성은 감독·기보배 코치...안산·김제덕 특별출연

양궁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언니랑 쏠래?’는 스포츠 예능 최초로 시도되는 양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여성 양궁단 창단부터 전국대회 출전까지 신생 양궁단의 도전을 담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최미선·안산을 지도한 김성은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기보배가 코치로 함께 한다. 여자체조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신수지와 일본 출신 방송인 모에카는 연예인 창단 멤버로 사선에 선다.

지난 5월 사전 촬영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 단위의 양궁단 선발전전을 시작으로 집중 훈련, 단체·개인 미션, 평가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에 열리는 ‘제1회 광주시 남구청장배 전국생활체육양궁대회’ 출전까지 6개월의 대장정을 펼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안산·김제덕은 양궁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 ‘특수 훈련’ 일일 코치를 자처하고 나섰다. 광주발 K-양궁의 바람을 일으킬 ‘언니랑 쏠래?’는 오는 31일 오후 7시 40분 KBS1 채널에서 첫 방영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경기,수도권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 대지 샅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일시: 2022. 9. 13 (화) 오후 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남구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시: 2022. 9. 6 (화) 오후 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광 신원우(61015-XXXXXX)
- 최종주소: 광주 광산구 소촌로 100, 102동 803호 (소촌동, 소촌동모아엘가)

피상속인 광 신원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나895호로 신청하여 2022년 8월 1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 뒤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8월 24일

- 상속인: 1.박미정(620807-XXXXXX) 광주 광산구 소촌로 100, 102동 803호 (소촌동, 소촌동모아엘가)
- 2.신지영(900312-XXXXXX) 전남 장성군 삼계면 동성로 548, 102동 505호 (삼부아파트)
- 3.신대식(930619-XXXXXX) 제천시 칠성로9길 33, 201호 (청전동)
- 신고기간: 2022. 8. 24 ~ 2022. 11. 3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박미정의 주소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가경(이하 '가'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해운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8월 23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가'의 재산의 일부인 소상용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가'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9항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8월 24일

'가' 주식회사 가경
전라남도 해남읍 해남읍로105-8, 에이동 사비이사 안민오

'을' 주식회사 해운전력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공단길 38 사비이사 권재필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할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축척리 농공단지 내

면적: 공장 150평, 냉면참고 200평 (금강동, 남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입 가능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산행안내

8월27일(토)

- ▲광주호신회 8월27일(토) (지리산 피아골계곡 산행)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장출발 07시 롯데배회
- ▲광주산악회 8월27일(토) 저녁출발, 무박 (강원인제방태산&곰배령공백골 원시원림산의화원&생화&인제자사 무술&야생가리계곡트레킹) * 저녁: 영주체육관11:00, 동야행11:05, 롯데백점11:10, 광주역11:15, 문예후문11:25, 비엔주자정11:3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
- 8월28일(일)
- ▲광주산악회 8월28일(일) (무주 구룡동 아사길 트레킹) 영주체육관

점 07시 15분 예술화관문 * 다음카페 영주체육관11:00, 동야행11:05, 롯데백점11:10, 광주역11:15, 문예후문11:25, 비엔주자정11:3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

점 07시 00분 에스텔병원 07시 05분 미레토2시 07시 08분 서구청 07시 10분 농성역 04분 출구 07시 14분 신세계백화점 농성역 07시 20분 문예회관 후문 07시 25분 비엔네주자정도로면 07시 30분 * 광주산악회 ☎ 010 662 501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세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